# 올레핀중합공정 국산화“난항”

## 기업간 이해상충 … 생산기업들 국산화 연구투자 미온적 태도

국내 올레핀중합공정의 국산화작업이 아직 방향설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94년 12월13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화학공정센터·응용과학연구소·한국과학기술원 주최로 약 35명의 박사 및 국내 연구소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올레핀 중합공정 국산화 전략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생산기술원의 허완수 박사는「국내 올레핀 중합공정 기술도입 현황」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92년 이후 국내 올레핀생산기업들이 기술 및 설비도입 등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내 올레핀공정의 국산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석유화학산업은 나프타 생산이 세계 5위를 점하고 있고, 폴리올레핀 총생산량이 일본의 80% 수준에 육박했으며 10여개기업에서 30여개의 공정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촉매를 비롯한 중합공정은 외국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엄청난 규모의 기술료지불은 물론 국내 올레핀산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어 삼성엔지니어링의 이동수 소장은『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은 대부분 라이센서에서 기본설계까지 수행하고 국내기업들은 상세설계 및 구매, 시공과 관련된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 엔지니어링기술은 모델링 등 설계자립화가 진행중이지만 전반적으로 중합공정 설계 자립도는 극히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폴리머 모델링 현황은 제일합섬·삼성엔지니어링·코오롱의 PET 프로세스모델링과 럭키의 PVC 프로세스모델링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과학기술원의 우성일 박사는 국내 중합공정 기술 및 설계기술 등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서 막대한 기술료지불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촉매를 비롯한 엔지니어링 기술확보를 위해 산·학·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올레핀 중합공정 국산화 센터」설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발표자와 기업관계자의 토론과정에서 연구소 담당자들은 대부분 기업간의 이해가 상충하는 현실여건상 기업간 공동 개발투자를 이끌어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와 연구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여기에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실제 이번 간담회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올레핀생산기업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국내기업들이 국산화보다 단기적인 이해에만 급급해한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번 올레핀 국산화 간담회는 기업과 연구소간 공동의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하기까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또 아직 설계 및 플랜트 등 설비에 관한 엔지니어링기술부터 접근할 것인지, 촉매나 반응기술 등 구체적인 분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설정에서부터 혼란을 거듭해 앞으로 국산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학저널 1995/1/9>